OPEN ACCESS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Factors Affecting Female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n the Internet

윤현수 (Hyunsoo Yoon)*
오상희 (Sanghee Oh)**
이영미 (Yeongmi Lee)***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건강신념모델(HBM)과 계획된행동이론(TPB)을 기반으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감정적 평가를 주요 요인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들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반면에 지각된 장애는 낮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의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대생들의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건강관심도 등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보건기관 등이 온라인 건강정보 문해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여대생들의 생식건강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female college students' behaviors in seeking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HBM)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affective evaluation were defined as key factors, and the study was designed accordingly. An online survey was distributed to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through the university student's online community, 'Everyti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seek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was associated with higher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benefit, and subjective norms, and lower perceived barrier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sexual experiences, experience with reproductive system disorders, and the level of health interest. We believe that this research outcome will contribute to assessing the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reproductive health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reby aiding in the development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or related service programs by university libraries, health institutions, and similar entities targeting female college students.

키워드: 여대생, 생식건강정보탐색, 건강정보탐색행위, 건강신념모델, 계획된행동이론
female college students,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seeking,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Health Belief Model (HBM),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yunhs9@g.skku.edu)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angheeoh@skku.edu)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remake2828@g.skku.edu)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24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 2024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자 : 2024년 3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41(1), 389-409,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1.389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생식 건강은 생식 기관에 질병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생식 기관의 상태를 의미한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이하 NIH), 2023; World Health Organization(이하 WHO), 2023). 특히, 여성의 생식건강은 임신 중 태아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적 자원의 생산과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안명옥, 2014; 이소영, 김가희, 2021). 여성은 2차 성징 이후에도 월경, 임신, 출산, 폐경 등 생애 주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생식 건강 문제를 직면한다(안명옥, 2014; 이유미 외, 2017). 월경 중 여성은 월경통, 무월경, 부정출혈, 월경과다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폐경기 이후에는 질건조증, 골다공증,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안명옥, 2014; NIH, 2023). 이 외에도 여성은 방광염, 자궁내막증, 성매개감염병, 자궁경부암 등 생식기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NIH, 2018).

젊은 여성의 경우, 청년기에 확립된 건강 관리 습관은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아름, 강현욱, 2019). 20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규칙한 월경,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 생식기계 이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며(송은솔 외, 2023; 이소영, 임지영, 2022) 10대 때보다 흡연, 음주, 연애, 성행위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김수정, 2012; 노주희, 유성희, 2018; 황아름, 강현욱, 2019). 청년기의 임신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은 생식기계 질환을 초기에 시기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식기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추후 가임기 동안 태아와 자신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명옥, 2014; 이상림 외, 2014).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한다(민지원, 차희원, 2017; 장안리, 김유정, 2021). 젊은 여성들은 산부인과가 주로 임신이나 결혼생활 중에 생식건강에 문제가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경우 성병이 있거나 문란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한다(이선옥, 2019; 장안리, 김유정, 2021; 정진아 외, 2018; Cassidy et al., 2018; Frost et al., 2016). 또한, 젊은 여성들은 산부인과의 진료 환경, 의료진, 의료 과정에 대해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데(이상림 외, 2014), 산부인과 진료 중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 의료진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다(Shin et al., 2021). 특히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혼 여성의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시각과 결혼 후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기도 한다(Park, Yeun, & Hwang, 2016).

여대생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젊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검진의 부정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바쁜 대학생활로 인해 건강관리를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여대생들은 산부인과 진료 시간이 수업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Cassidy et al., 2018). 또한 생식건강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여대생들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Burchard, Laurence, & Stocks, 2011; Shin et al., 2021). 예를 들어, 여대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어디서 획득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장안리, 김유정, 2021). 때문에, 여대생들은 생식건강정보에 관해 의료 전문가나 부모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비판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에 더 많이 의존하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얻거나 탐색한다(장안리, 김유정, 2021; Basch et al., 2018; Frost et al., 2016; Hassan & Masoud, 2021; Malik et al., 2023). 또한, 여대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검색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며 관련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는데(Kvasny & Payton, 2018), 그들의 이러한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 관련 정보 탐색행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식건강정보 추구의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자신들이 지각하고 있는 생식건강 관련 질병 노출에 대한 민감성,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하는 요인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생식건강의 민감성과 심각성, 인터넷 탐색으로 얻는 이익과 장애요인, 사회의 주관적 규범, 여대생의 지각된 통제, 감정적 평가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하는 요인들은 그들의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질문 3: 여대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식건강 관련 특성,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생식 건강을 인터넷에서 탐색하는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해 연구질문 1의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요인은 개인의 건강 행위를 설명하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에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 감정적 평가는 개인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으로부터 도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정보 요구사항과 선호사항을 이해함에 따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이나 보건기관 등이 온라인 건강정보 문해교육이나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2.1 대학생의 건강정보 탐색행위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신체적 부상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증상, 치료, 병원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찾고(김수정, 2012; Horgan & Sweeney, 2012; Shi & Luo, 2019), 건강한 신체 유지와 비만 예방을 위해 피트니스, 비타민, 다이어트 정보를 찾는다(Dobransky & Hargittai, 2012; Prybutok & Ryan, 2015; Shi & Luo, 2019). 대학생들은 친구와 가족을 위한 건강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많은데(김수정, 2012; Basch et al., 2018; Shi & Luo, 2019),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학생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예방 접종, 증상 확인 등의 정보를 찾기도 했다(Abdoh, 2022). 대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자신이 신뢰하거나 친숙한 사람과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Shi & Luo, 2019). 가족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하고, 부모의 질병과 관련된 경험을 신뢰한다(Kvasny & Payton, 2018). 한편,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나 스포츠팀 코치 등에게 건강 문제를 논의한다(Shi & Luo,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타인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인터넷 사용을 선호한다(Basch et al., 2018; Escoffery et al., 2005; Shi & Luo, 2019). 대학생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고, 편의성, 사용 용이성,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조언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Abdoh, 2022; Prybutok & Ryan, 2015; Shi & Luo, 2019).

2.2 여대생의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

특히, 여대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많이 탐색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건강정보를 위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한다(Basch et al., 2018; Montagni et al., 2016; Hassan & Masoud, 2021). 여대생들은 인터넷 정보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의료기관이나 의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작성한 정보를 신뢰한다(Frost et al., 2016; Payton, Kvasny, & Kiwanuka-Tondo, 2014). 또한, 여대생들은 생식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님이나 의사와의 상담을 꺼리고(민지원, 차희원, 2017; 장안리, 김유정, 2021; Shin et al., 2021), 페이스북, 블로그,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장안리, 김유정, 2021; Kvasny & Payton, 2018; Payton, Kvasny, & Kiwanuka-Tondo, 2014). 예를 들어, 여대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생식건강정보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고(Kvasny & Payton, 2018; Payton, Kvasny, & Kiwanuka-Tondo, 2014)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장안리, 김유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탐색행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생식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수행하였다.

2.3 건강신념모델(HBM)

HBM은 질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반응과 건강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다(Champion & Skinner, 2008). HBM의 주요 구성요인으로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가 있다. 지각된 민감성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심각성은 건강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신체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포함한다. 지각된 이익은 질병의 위험이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권장 조치의 효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지각된 장애는 권장 행동의 수행을 방해하는 특정 건강 행동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건강정보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HBM은 자주 사용되었는데,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Malik et al., 2023; Mou et al., 2016; Zhao, Zhao, & Song, 2022). 지각된 이익이나 장애는 주로 시간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재정 문제, 노력, 심리적 장벽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끼면 이를 인터넷 검색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한다(Mou & Cohen,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HBM의 4가지 구성 요인들을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맞추어 재정의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4 계획된행동이론(TPB)

TPB는 합리적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확장된 이론으로, TRA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데 있어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Ajzen & Fishbein, 1975). TPB는 TRA에 지각된 행동 통제를 구성 요소로 추가하여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행동 의도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이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로 구성되어 있다(Ajzen, 1991).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행동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특정 행동이 얼마나 용인되는지 인식하는 정도인데, 주관적 규범은 보수적인 문화 맥락에서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민지원, 차희원, 2017).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 수행의 용이성 또는 난이도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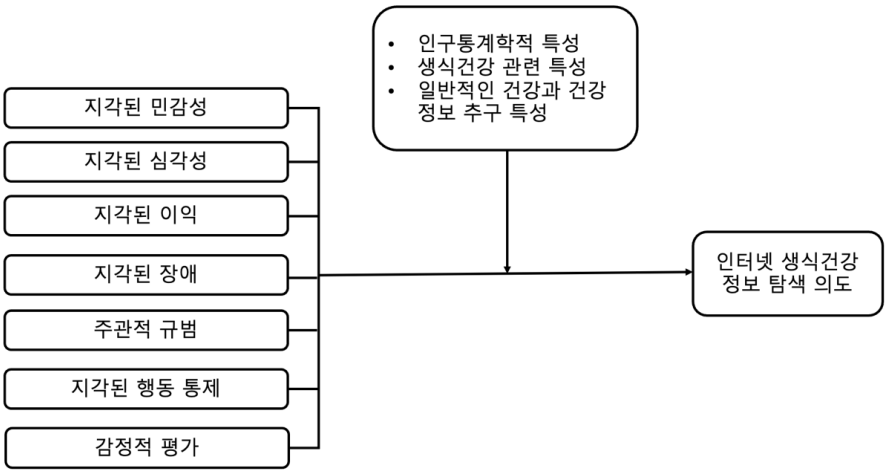
TPB를 이론적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행위를 탐구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건강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질병 예방이나 습관 변화에 대한 유용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탐색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고, 건강정보 탐색은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들의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Shamlou, Saberi, & Amiri, 2022).

TPB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지적 요인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해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감정적인 요인도 포함하였다(민지원, 차희원, 2017; Keer, Van Den Putte, & Neijens, 2012; Li et al., 2021; Rivis, Sheeran, & Armitage, 2009). 감정적 평가는 행동을 실행했을 때 느끼는 쾌락이나 불쾌감 등 전반적인 느낌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Keer, Van Den Putte, & Neijens, 2012). Li et al.(2021)은 TPB의 요인 중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행동을 주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밝혔으며 민지원과 차희원(2017)은 산부인과에 대한 공포감이 여대생들이 산부인과 방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여성 생식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부끄러움이나 당혹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와 함께 감정적 평가를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모델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HBM과 TPB의 주요 요인들을 조사 분석한 후, 〈그림 1〉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HBM의 구성요소인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요인과 TPB의 구성요소인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감정적 평가를 선정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TPB의 태도와 관련된 인식은 HBM의 주요 요인에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어 연구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요인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각된 민감성**은 여대생들이 자신이 생식건강 문제에 대해 관련 질환에 취약한지, 노출될 확률이 높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1〉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연구모델

- **지각된 심각성**은 여대생들이 자신이 생식건강 질환에 대한 인식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협할 만한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 **지각된 이익**은 여대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유용한지, 자신들의 생식건강관리에 익숙해지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지각된 장애**는 여대생들이 인터넷에서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시간과 노력대비 문제해결의 정도, 신뢰성 등을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관적 규범**은 여대생들의 주변의 가족과 동료, 친구들의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지각된 행동 통제**는 여대생들이 생식건강의 문제를 염려하여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본인의 의지가 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산부인과 방문에 대해 자유롭게, 쉽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 **감정적 평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찾는 것에 대해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불쾌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괴로움,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불안감 등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는 위의 요인들이 여대생들이 인터넷 생식건강 정보를 탐색하는 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건강정보를 자주, 계속, 필요할 때, 의사결정 전에 탐색하려고 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모델의 주요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와 결혼 여부, 학년과 함께, **생식건강 관련 특성**인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생식건강에 대한 관심도, **일반적인 건강정보 특성**으로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 등의 그룹별로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내에 생식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고, 눈덩이 표집 및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최근 생식건강정보 탐색의 경험이 있는 여대생으로 한정하다 보니 다른 일반적인 대학생 인터넷 사용 연구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여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의 연구 참여자 모집

을 위해 '에브리타임'에 2, 3차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설문을 끝까지 마친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프트 카드 제공을 안내했다. 데이터 수집은 2024년 1월 한달 간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 참여를 시도한 143명의 참여자 중 3분의 1정도인 43명은 최근 6개월 내에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하지 않아 설문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본 연구의 조건에 맞춰 설문에 참여하고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103명의 참여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지는 앞서 언급한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1) 최근 6개월 동안 생식건강 검색 경험 유무(조건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설문 참여 중지), (2) 연구 참여 동의[1], (3)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생식건강 특성 조사, (5) 일반적인 건강정보 특성, (6)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 (7)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를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식건강정보 탐색 요인과 인터넷 정보 탐색 의도 등의 인식을 묻는 요인 관련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설문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만 22.61세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20대 초반이었다. 생식기계 질환의 경우 결혼 유무도 연관성이 있어 조사하였으나 모두 미혼이었다. 학년의 경우 4개 학년의 비율은 비교적 비슷했으나 1학년은 10.7%로 가장 적었고, 4학년은 39.8%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인 건강관심도에 대해서는 평균 3.89(표준편차=.80), 건강정보추구도는 평균 3.78로 나타났다(표준편차=.83).

생식건강에 대한 특성으로는 성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반반의 비율로 각각 53.4%, 46.6%로 나타났는데, 유계숙 외(2019)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은 2008년에는 22.3%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41.6%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연구가 2024년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여대생들의 성경험 관련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생식기계 질환 경험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48명(46.6%),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55명(53.4%)로 나타났다. 성경험 유무와 생식기계 질환 유무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여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둘의 연관성은 없어 연구 참여자들은 성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생식기계 질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식건강관심도의 평균은 3.64(표준편차=.83)로 나타났다.

5.2 신뢰도 분석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1)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통과(2024-01-005)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3)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11	10.7
	2학년	26	25.2
	3학년	25	24.3
	4학년	41	39.8
나이	만 29세	2	1.9
	만 28세	2	1.9
	만 26세	1	1.0
	만 25세	6	5.8
	만 24세	19	18.4
	만 23세	20	19.4
	만 22세	22	21.4
	만 21세	19	18.4
	만 20세	12	11.7
성경험 유무	예	55	53.4
	아니요	48	46.6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예	48	46.6
	아니요	55	53.4

〈표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요인	Cronbach's alpha	항목 수
지각된 민감성	.830	4
지각된 심각성	.736	5
지각된 이익	.775	4
지각된 장애	.641	3
주관적 규범	.709	4
지각된 행동 통제	.865	4
감정적 평가	.821	5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감정적 평가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탐색적 논문의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조사한 요인들은 모두 0.6 이상임을 확인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5.3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연구모델의 주요 요인인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인의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요인의 평균

〈표 3〉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의 주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민감성	3.02	.93
지각된 심각성	2.82	.79
지각된 이익	3.95	.60
지각된 장애	2.72	.77
주관적 규범	3.84	.69
지각된 행동 통제	3.71	.98
감정적 평가	1.94	.80

은 3.14이며, 7개의 요인을 개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지각된 이익이(M=3.95)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M=3.84), 지각된 행동 통제(M=3.71), 지각된 민감성(M=3.02), 지각된 심각성(M=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장애(M=2.72)와 감정적 평가(M=1.94)는 다른 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생식건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을 때, TPB의 가져온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의 요인이 HBM에서 제시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보다 높게 나왔다.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봤을 때는 인터넷 탐색의 지각된 이익을 장애 요인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감정적인 평가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의 요인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표 4〉와 같다. 여러 요인들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상관계수의 값이 0.2-0.4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0.4-0.6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Dancey & Reidy, 2007). 이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행동 통제와 주관적 규범의 상관계수 값이 .52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두 요인은 기술적 통계에서도 상대적으로

〈표 4〉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의 주요 요인 간의 상관관계

요인	1	2	3	4	5	6	7
1. 지각된 민감성	1						
2. 지각된 심각성	.412*	1					
3. 지각된 이익	.033	-.051	1				
4. 지각된 장애	.225*	.388*	-.224*	1			
5. 주관적 규범	.228*	.053	.291*	-.107	1		
6. 지각된 행동 통제	-.003	-.232*	.243*	-.088	.520*	1	
7. 감정적 평가	.400*	.481*	-.153	.167	-.252*	-.405*	1

*p<.05

다른 요인들보다 정도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여대생들은 산부인과 방문에 대해 지각된 행동통제나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두 요인들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감정적 평가의 경우 지각된 민감성과의 상관계수 값은 .400, 지각된 심각성과의 상관계수 값도 .481로 나타났는데, 생식건강에 대한 민감성이나 심각성이 높을수록 감정적 평가에서 조사한 두려움의 정도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정적 평가는 지각된 행동통제와는 상관계수 값이 -.405가 나타나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을 수록 감정적 평가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잘 인식하고 통제할수록 생식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상관계수의 값을 관찰했을 때는 강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행동 통제와의 상관계수 값이 -.232로 나타났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생식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자신들의 행동 통제에 대한 인식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의 주요 요인과 탐색 의도의 관계

본 연구의 7개 주요 요인들과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6.92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5.5%로 나타났다($R^2=.555$, $_{adj}R^2=.522$)(〈표 5〉 참고).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장애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 탐색의 이익이 클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 탐색 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는 낮아졌다.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인터넷 생식건강 정보 탐색 의도	지각된 민감성	.111	.051	.182	2.180	.032*
	지각된 심각성	.080	.064	.110	1.241	.218
	지각된 이익	.556	.070	.589	7.987	.000*
	지각된 장애	-.122	.057	-.166	-2.126	.036*
	주관적 규범	.144	.073	.175	1.963	.053*
	지각된 행동통제	-.015	.051	-.025	-.292	.771
	감정적 평가	-.006	.068	-.007	-.082	.935
$F=16.929$, $R^2=.555$, $_{adj}R^2=.522$						

*$p<.05$

5.5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요인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그룹간 비교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 학년에 따른 연구의 주요 요인들의 그룹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식 건강 특성에 관련하여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 생식건강관심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감정적 평가(t=2.18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평균=2.01, 표준편차=.81)가 성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평균=1.69, 표준편차=.66)에 비해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의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 주관적 규범, 감정적 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고). 생식기계 질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생식기계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에 비해 생식건강에 대해 더 민감하고, 주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대한 두려움은 더 높게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의 장애요인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생식건강관심도가 주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이익(t=2.879, p<.05), 주관적 규범(t=3.915, p<.05), 지각된 행동 통제(t=3.57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식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의 이익을 높게 인식하며,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을 가족이나 친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자신들의 행동 통제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표 6> 생식기계 질환 경험 유무에 따른 그룹간 비교

요인	생식기계 질환 경험	M	SD	t	p
지각된 민감성	유	3.36	0.87	3.635	.000*
	무	2.72	0.88		
지각된 심각성	유	2.78	0.83	-.0597	.552
	무	2.87	0.76		
지각된 이익	유	4.05	0.55	1.601	.113
	무	3.86	0.64		
지각된 장애	유	2.53	0.73	-2.385	.019*
	무	2.89	0.78		
주관적 규범	유	3.98	0.73	2.040	.044*
	무	3.71	0.64		
지각된 행동 통제	유	3.88	1.03	1.615	.110
	무	3.57	0.91		
감정적 평가	유	2.08	0.86	2.701	.008*
	무	1.68	0.86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건강정보 특성에 관련하여 전반적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가 주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관심도에 따라 지각된 행동 통제($t=2.673$, $p<.05$)와 감정적 평가($t=-2.41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통제가 강했으며 생식건강 정보 탐색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높았다. 건강정보추구도의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t=3.574$, $p<.05$)와 주관적 규범($t=2.80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정보추구도가 높을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통제력이 높고,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5.6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요인과 의도에 대한 연구 참여자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주요 요인과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고자 학년, 나이, 성경험 유무, 생식기계 질환 유무, 생식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 건강정보추구도를 조절 요인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심도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조절효과를 감정적 평가는 부(-)적 조절효과를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대한 영향이 높아졌다($F=5.358^*$, $R^2=.140$, coeff$=.211$, se$=.66$, $t=3.201$, $p<.05$). 다만, 조절요인이 낮거나($W=-.803$) 보통($W=.000$)인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가 높은($W=.803$) 경우에만 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적인 평가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대한 영향은 낮아졌다($F=5.358^*$, $R^2=.140$, coeff$=-.231$, se$=.078$, $t=-2.943$, $p<.05$). 다만, 조절변수가 낮거나($W=-.803$) 보통($W=.000$)인 경우에는 감정적 평가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관심도가 높은($W=.803$) 경우에는 부(-)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건강정보추구도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 간에 정(+)적 조절효과를 미쳤다. 연구 참여자의 건강정보추구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F=6.421^*$, $R^2=.163$, coeff$=.202$, $p<.05$). 조절요인이 낮거나($W=-.828$) 보통($W=.000$)인 경우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정보추구도가 높은($W=.828$) 경우에는 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6. 논 의

여대생들의 바람직한 생식건강정보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HBM과 TPB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 관련 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볼 주요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은 지각된 민감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이익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 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다. 즉, 여대생들은 자신이 생식기계 질환에 취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의 장점을 높게 평가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찾고자 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건강정보 탐색 특성과도 일치하는데, Malik et al.(2023)은 지각된 민감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탐색 의도가 높음을 밝혔다. Zhao, Zhao, & Song (2022)은 더 나아가 지각된 민감성은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위험은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았다.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 탐색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각된 이익 요인을 분석함에 따라 여대생들은 인터넷이 생식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용이하고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여대생들은 지각된 장애가 낮을수록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아진다. 즉, 인터넷 정보 탐색의 시간과 노력,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장애 요인에 대해 낮게 인식할수록 인터넷 사용 의도는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탐색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정보 탐색에서도 비슷한데, Malik et al.(2023)은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각된 장애가 높을수록 이를 이용해 건강정보를 탐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여대생들은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나 친구가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탐색할 의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생식건강정보를 찾는다는 선행연구(민지원, 차희원, 2017; 장안리, 김유정, 2021)의 결과와 함께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인 측면, 즉 여대생들의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산부인과 방문이나 관련 건강정보추구의 긍정적 지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설계했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그들의 적극적인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여대생들의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감정적인 평가는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 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높았으며, 여대생들의 성경험유무, 생식기계 질환 유무, 건강관심도 등에 따른 그룹간 비교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여대생들은 자신들의 생식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의 통제력이 높을수록 감정적으로 생식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감

정 인식 수준이 낮았다. 또한, 여대생들은 성경험이 있거나, 생식기계 질환을 경험하거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감정적인 평가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성경험이나 생식기계질환 등의 생식건강 위험 요소들에 대해 인식 정도가 그들의 감정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7. 결 론

본 연구는 젊은 여성이 산부인과에 방문하거나 생식건강정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BM과 TPB는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보완하여 본 연구에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들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생식건강 관련 공공, 보건 기관들이 여대생들의 생식건강의 정보 탐색에 있어 의사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들의 질병이나 질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식건강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낮출 수 있으며, 여대생들의 생식건강 특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및 제공도 그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생식건강 탐색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며 6개월 이내 생식건강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생식기계 질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종류와 정도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생식건강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을 확대하여 샘플을 모집하고 생식건강 관련 요인들과 질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여대생의 인터넷 생식건강정보 탐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에 따른 정보의 종류의 이용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김수정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요구와 추구행태에 관한 탐험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239-260.

노주희, 유성희 (2018). 여대생의 생활습관과 우울, 불안 및 생식건강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4(1), 80-89. https://doi.org/10.4069/kjwhn.2018.24.1.80

민지원, 차희원 (2017). 공포와 사회규범이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이론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61(1), 217-250. https://doi.org/10.20879/kjjcs.2017.61.1.007

송은솔, 박은자, 최승아, 박주현, 송보미, 한경희, 박현영 (2023). 한국 여성의 월경・폐경 관리: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결과. 주간 건강과 질병, 16(5), 783-800. https://doi.org/10.56786/PHWR.2023.16.25.1

안명옥 (2014). 여성의 평생건강과 모자보건-생애주기적 관점.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1-12.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1

유계숙, 기나휘, 김민정, 양다연, 윤지은 (2019). 여대생의 성경험과 성지식: 2008년과 2018년 여대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4(1), 37-54. https://doi.org/10.13049/kfwa.2019.24.1.3

이상림, 임지영, 이은주, 조영태, 라채린 (2014).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협동연구 20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옥 (2019). 여대생의 성지식, 산부인과 방문의도와 방문인식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3(2), 84-92.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2.84

이소영, 김가희 (2021).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 보건사회연구, 41(2), 141-156. http:// doi.org/10.15709/hswr.2021.41.2.141

이유미, 조희영, 이은, 이후연, 유은경, 박수경, 배은경, 백혜진, 이수진, 박보영, 서다혜, 권정아, 서미라, 최귀선, 강민아, 김현수, 박소희, 조주희, 함명일, 서민아, 한민경, 최은지, 박진영, 최동우, 조하나, 박영란, 김수, 박경순, 박은주, 강수연 (2017).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조사 및 이슈 발굴. 보건복지부.

장안리, 김유정 (2021). 여대생들의 자궁경부암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캠페인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586-597.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586

정진아, 김민지, 노진아, 고수정, 박영현, 정주미, 김다현, 김도영, 최현경 (2018). 여대생의 여성전문병원에 대한 인식과 생식건강 증진행위. 경북간호과학지, 22(1), 28-40.

황아름, 강현욱 (2019). 대학생의 e 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2(3), 165-174. https://doi.org/10.15434/kssh.2019.32.3.165

Abdoh, E. (2022).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digital health literacy among information and learning resources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8(6), 102603. https://doi.org/10.1016/j.acalib.2022.102603

Ajzen, I. & Fishbein, M. (1975). A Bayesian analysis of attribution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82(2), 261. https://doi.org/10.1037/h0076477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Basch, C. H., MacLean, S. A., Romero, R.-A., & Ethan, D. (2018).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43, 1094-1099. https://doi.org/10.1007/s10900-018-0526-9

Burchard, A., Laurence, C., & Stocks, N. (2011). Female international students and sexual health: a qualitative study into knowledge, beliefs and attitudes. Australian Family Physician, 40(10), 817-820.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nformit.474763403082822

Cassidy, C., Bishop, A., Steenbeek, A., Langille, D., Martin-Misener, R., & Curran, J. (2018). Barriers and enablers to sexual health service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using the theoretical domains framework and COM-B model.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8(1), 1-12. https://doi.org/10.1186/s12913-018-3379-0

Champion, V. L. & Skinner, C. S. (2008). Chapter 4. The Health Belief Model. In Glanz, K., Rimer, B.K., Viswanath, K. 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45-65.

Dancey, C. P. & Reidy, J. (2007). Correlational Analysis: Pearson's r In Statistics Without Maths for Psychology. Harlow: Pearson Education.

Dobransky, K. & Hargittai, E. (2012). Inquiring minds acquiring wellness: Uses of online and offline sources for health information. Health Communication, 27(4), 331-343. https://doi.org/10.1080/10410236.2011.585451

Escoffery, C., Miner, K. R., Adame, D. D., Butler, S., McCormick, L., & Mendell, E. (2005). Internet use for health inform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3(4), 183-188. https://doi.org/10.3200/JACH.53.4.183-188

Frost, M., Cares, A., Gelman, K., & Beam, R. (2016). Access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and information: Perspectives and recommendations from young Asian American women. Sexual & Reproductive Healthcare, 10, 9-13. https://doi.org/10.1016/j.srhc.2016.09.007

Hassan, S. & Masoud, O. (2021).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health literacy among non-medical college students: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Public Health, 29, 1267-1273. https://doi.org/10.1007/s10389-020-01243-w

Horgan, A. & Sweeney, J. (2012). University students' online habits and their use of the Internet for health informatio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30(8), 402-408. https://doi.org/10.1097/NXN.0b013e3182510703

Keer, M., Van Den Putte, B., & Neijens, P. (2012). The interplay between affect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36(1), 107-115.

https://doi.org/10.5993/AJHB.36.1.11

Kvasny, L. & Payton, F. C. (2018). Managing hypervisibility in the HIV prevention information-seeking practices of Black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9(6), 798-806. https://doi.org/10.1002/asi.24001

Li, J.-Y., Wen, T. J., McKeever, R., & Kim, J. K. (2021). Uncertainty and negative emotions in parental decision-making on childhood vaccinations: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the context of conflicting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6(4), 215-224. https://doi.org/10.1080/10810730.2021.1913677

Malik, A., Islam, T., Ahmad, M., & Mahmood, K. (2023).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behavior of young adults on social media in Pakistan.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5(3), 579-595. https://doi.org/10.1177/09610006221090228

Montagni, I., Parizot, I., Horgan, A., Gonzalez-Caballero, J.-L., Almenara-Barrios, J., Lagares-Franco, C., Peralta-Sáez, J.-L., Chauvin, P., & Amaddeo, F. (2016). Spanish students' use of the Internet for mental health information and support seeking. Health Informatics Journal, 22(2), 333-354. https://doi.org/10.1177/1460458214556908

Mou, J. & Cohen, J. (2014). Trust, risk barriers and health beliefs in consumer acceptance of online health services. Thirty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uckland, 1-19.

Mou, J., Shin, D.-H., & Cohen, J. (2016). Health beliefs and the valence framework in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9(4), 876-900. https://doi.org/10.1108/ITP-06-2015-0140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18). Women's Health. Available: https://medlineplus.gov/womenshealth.html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23). Reproductive Health. Available: https://www.niehs.nih.gov/health/topics/conditions/repro-health/index.cfm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 Hill.

Park, Y., Yeun, E. J., & Hwang, Y. Y. (2016). Subjectivity about sexual ethics among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Q methodology. Asian Nursing Research, 10(2), 143-149. https://doi.org/10.1016/j.anr.2016.05.002

Payton, F. C., Kvasny, L., & Kiwanuka-Tondo, J. (2014). Online HIV prevention information: How black female college students are seeking and perceiving. Internet Research: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cy, 24(4), 520-542. https://doi.org/10.1108/IntR-09-2013-0193

Prybutok, G. & Ryan, S. (2015). Social media: the key to health information access for 18-to 30-year-old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33(4), 132-141. https://doi.org/10.1097/CIN.0000000000000147

Rivis, A., Sheeran, P., & Armitage, C. J. (2009). Expanding the affective and normative component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sis of anticipated affect and moral nor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12), 2985-3019.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9.00558.x

Shamlou, Z., Saberi, M. K., & Amiri, M. R. (2022).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tention and behavior of women.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4(4), 727-744. https://doi.org/10.1108/AJIM-07-2021-0209

Shi, Y. & Luo, L. (2019). Chinese college Students'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mplications for academic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5(2), 69-74. https://doi.org/10.1016/j.acalib.2019.01.002

Shin, H. Y., Song, S. Y., Jun, J. K., Kim, K. Y., & Kang, P. (2021). Barriers and strategies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What do female university students know and want? PlOS One, 16(10), e025752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752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Reproductive Health. Available: https://www.who.int/southeastasia/health-topics/reproductive-health

Zhao, Y. C., Zhao, M., & Song, S. (2022).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mong patients with chronic conditions: integrating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ocial support theor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4(11), e42447. https://doi.org/10.2196/42447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Ahn, Myungock (2014). Life-cycle specific comprehensive women's health and maternal child health.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8(1), 1-12.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1

Hwang, Areum & Kang, Hyunwook (2019). Influence of e-health literac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2(3), 165-174. https://doi.org/10.15434/kssh.2019.32.3.165

Jang, Ahnlee & Kim, Yoojung (2021).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ervical cancer,

hpv vaccine, hpv vaccine campaig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586-597.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586

Jung, Jina, Kim, Minji, Noh, Jina, Ko, Sujeong, Park, Yeonghyeon, Jeong, Jumi, Kim, Daheyon, Kim, oyoeng, & Choi, Hyunkyung (2018). Perceptions toward women's clinic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Innov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2(1), 28-40.

Kim, Soojung (2012). An exploratory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health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s in social medi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239-260.

Lee, Sangrim, Lim, Jiyong, Lee, Eunjoo, Jo, Youngtae, & Ra, Chaerin (2014). Preconception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un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 focusing on medical service use and online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Korea Inst Health Soc Affairs Coop Res.

Lee, Soyoung & Kim, Kahee (2021). A study on the suppl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infrastructure for ensuring reproductive health. Health Soc Welf Rev, 41(2), 141-156. http://doi.org/10.15709/hswr.2021.41.2.141

Lee, Sunok (2019). Effect of sex knowledge, intention to visit obstetrics-gynecology, awareness of visit of female college students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3(2), 84-92.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2.84

Lee, Yumie, Cho, Heeyoung, Lee, Eun, Lee, Hooyeon, Yoo, Eunkyung, Park, Sookyung, Bae, Eunkyung, Paik, Hyejin, Lee, Soojin, Park, Boyoung, Seo, Dahye, Kwon, Joengah, Seo, Mira, Choi, Gwisun, Kang, Minah, Kim, Hyunsoo, Park, Sohee., Cho, Joohee, Ham, Myeongil, Seo, Min, Han, Min-kyung, Choi, Eun-ji, Park, Jin-young, Choi, Dong-woo, Cho, Hana, Park, Young-ran, Kim, Soo, Park Kyung-soon, Park Eun-joo, & Kang, Sooyeon (2016). Study on Exploring Women's Health Issues and Research Planning for Korean Wome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 Jeewon & Cha, Hee-Won (2017). The effect of fear and social norm on unmarried woman's intention of visiting gynecology hospital: Application of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1), 217-250. https://doi.org/10.20879/kjjcs.2017.61.1.007

Nho, Ju Hee & Yoo, Sung Hee (2018). Relationships among lifestyle, depression, anxie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4(1), 80-89. https://doi.org/10.4069/kjwhn.2018.24.1.80

Song, Eunsol, Park, Eunja, Choe, Seungah, Park, Juhyun, Song, Bomi, Han, Kyunghee, & Park, Hyunyoung (2023). How do Korean women manage menstrual or menopausal symptoms: 2022 Women's health survey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ublic Health Weekly Report, 16(5), 783-800. https://doi.org/10.56786/PHWR.2023.16.25.1

Yoo, Gyesook, Ki, Nahwi, Kim, Minjeong, Yang, Dayeom, & Yoon, Jieun (2019).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intercourse and knowledge: A comparison of two cohorts in 2008 and 2018. Korea Child & Family Welfare Association, 24(1), 37-54. https://doi.org/10.13049/kfwa.2019.24.1.3